

# “윤창중 청문회 부정적 입장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필요”

새누리 최경환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향후 여야 관계에 대해 “손에 손 잡고 어려운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경선에서 입기 1년의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법안의 범위와 내용에서 여야 및 정부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 원

만하게 조정해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기로 한 개헌연구회 구성을 놓고 다소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소상히 파악한 후 적절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창중 사태”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나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엄격한 진상조사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했고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취임 초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 인선 문제에

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주변의 평가를 듣거나, 인사추천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같은 친박(친박근혜)계 인이주영 의원을 8표 차로 이기는 신승을 거둔데 대해 “선거 과정에서는 박심(朴心)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작중하지 않았다”며 “당내 민주화가 활성화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집권여당 당내 국정 뒷받침을 제대로 해 성과를 내라”,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견제도 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 눈높이의 일 낱낱 협조 與 독선·독주엔 단호히 견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여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일이라면 낱낱하게 협조하겠지만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독선과 독주라면 단호하게 맞서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에서 승리한 뒤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협상은 치열하게 치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앞에 민주당이 무엇을 말하고 싶고 무엇을 해냈는지 분명히

전달하는 선명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며 “선명한 민주당은 래디컬(급진적)하기 보다는 브라이언트(명석한)한 민주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 대응 방향으로 “음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부위를 통과해 있는 독점규제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FUI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내 틀 내에서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고, 경쟁보다는 협력할 것이 절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안 의원

의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파문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 공직기강 문제, 파문 축소·은폐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런 절제된 속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2 대선정책 평가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토론회에서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노동과 임금 문제를 더 이상 노조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민 절대다수의 문제로 제자리에 올려둘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책 실현 능력 부족 대선 패배”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패배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최재성 의원 등 소속 의원 14명의 공동 주최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2 대선정책 평가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토론회에서다.

발표에 나선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정책을 실현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민주당

민주당 대선평가 토론회 시민사회단체·학계 지적

의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소장은 발표문에서 “민주당은 시민단체처럼 행동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 팀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열거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문 후보의) 정부팀도 정책과 관계없는 투표를 끌어올리기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50대 유권자들이 문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마추어적 행태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성경룡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일화 과정으로 패인을 들었다. 성 교수는 “양측은 ‘새정치’라는 의제에만 집착해 민생 정책을 놓치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빠졌다”며 “결국 ‘아름다운 단일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후회 지자 중 40%는 문 후보에 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친노 진영에 책임을 돌리는 내용의 대선정책 보고서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전제로 대선 과정을 복기했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15일 새누리당은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최경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로 전병헌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 김한길 대표. /연합뉴스



15일 새누리당은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최경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로 전병헌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 김한길 대표. /연합뉴스

### 최경환 프로필

경제관료 출신의 3선 의원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비주류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함께 해 온 ‘원조친박’의 대표주자.

박 대통령의 첫 대권도전이었다던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때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최측근의 위치에 있었으나 ‘인의 장막’ 논란 속에 친박 총퇴진군이 거세

### ‘원조친박’ 대표주자... ‘MB정부’ 장관도

지자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물러났다.

경제기획원에 출근 근무하다 1999년 예산청 법무담당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제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청도에서 당선됐다.

친박계가 비주류이던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MB 내각’에 들어갔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의 신뢰관계 또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직을 마치고 당으로 복귀한 2011년부터 친박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주위 사람을 잘 보듬고 감싼다는 평을 듣는다.

▲경북 경산(58)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사무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보좌관 ▲예산청 법무담당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7, 18, 19대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장관

### 전병헌 프로필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의 여러 지도부를 거쳐 ‘정책통(通)’으로 활동했던 서울 출신의 3선 의원.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1년 만의 재도전에 뜻을 이뤘다. 1980년대 후반 평민당 시절 야당 당료로 출발해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부비서관, 국정상황실장, 국정홍보처 차장 등을 거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 때 서울 동작 갑(甲)에서 당선, 여의도에 입성했다. 열린우리당에서 정책위 상임부대표,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 요직을 역임했다.

18대 국회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아 당시 미디어법 투쟁의 선봉에 섰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 그 뒤 정책위의장을 맡아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 복지정책을 당론으로 만들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복지정책 경쟁을 벌였다.

▲충남 홍성(55) ▲취문고, 고려대 정외과 ▲민주당 조직국장 ▲청와대 정부비서관 ▲새천년민주당 ▲17·18·19대 ▲열린우리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정책위의장

## 채무자 상호조선(주) 동산 매각 공매(입찰)공고

채무자 상호조선(주) 파산재단 소유의 동산(선박용 블록 및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공고 합니다.

1. 목적물(매각대상 동산) 표시 : 채무자 상호조선(주) 광양공장 보관 선박용 블록 및 시설재 일체 (※ 거주구 2세대 및 해치카바 1식은 별도 매각으로 제외함)

구분	그룹명	품명 & 규격	수량	총량	비고
가)군	시설재/저체	CO2용접기(600V) 386대 및 92중	감정평가액	총10,601개	채무자 상호조선(주) 파산재단
			W716,156,500		
나)군	선박용블록	SH-1229-S01 P/S 182.64톤의 43중	총 44중	4,854톤	양도담보권 (한국수출입은행 (유리은행))
			W1,596,472,850		

※ 매수 희망자는 사전에 목적물을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하며, 목적물 상태 그대로를 매수하는 조건.

※ 취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채무세금으로 양무물건 인입(법률적 제한 물건이 있음).

2. 상세내역 : 감정평가서 참조(현장 설명회에서 별도 배부 예정)

3. 목적물 최저가 지정 : 그룹별 매각 최저가 총액 이상 제시(부가세 별도)

4. 매각방법 : 일반 자유경쟁에 의한 매수 희망자(건축사, 세출(저가) 총액 기준) 중 그룹별 최고가 제시하는 업체 선정 후 개별 협의의 통해 최종 선정(입찰 매각 및 그룹별 매각 가능함)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자적 요건 및 일정

가) 선정자적 요건

- 본 건과 관련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상거래에 이상이 없는 정식 사업자등록자 혹은 업체
- 매수 희망자는 서류제출 기간내 당사 지정통장에 견적보증금 그룹별 감정평가액(매매최저가)의 10% 이상을 납입한 사업자 및 업체 (지정통장 납입 혹은 서류제출 시 수표 동봉)
- 매수 희망자격을 그룹별 매각 최저가 총액 이상을 제시한 업체 중 최고액 기준 2개업체 선정 기준으로 하나 단독업체일 경우에도 동일함.
- 2개업체 이상일 경우 최고액 제시 2개업체는 추가로 상세건적 서류 제출 후 결정 (감정평가서 기준 견적서)

나) 매수 희망자 제출서류(일부 후 언비 처리 요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인등록증(법인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매수 희망자(개인인 개인인감증명서) - 그룹별 금액 제시 1부
- (※ 대리인은 본인인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1부
- 매수 희망자 명의 통장(견적보증금 반환용) 1부
- 비밀보장약서(당사 제공/인감증명서 포함) 1부
- 입찰(견적)보증금 은행입금증 혹은 수표 동봉 1부

다) 일정

- 현장설명회 : 2013년 5월 20일 15:00 (주)오리엔트조선 광양공장 정문 앞
- 현장설명회 사전 참가 신청서제 한하여 참석 가능(참가신청서/비밀유지약서 사전 제출)
- 매수 희망자 서류제출 기간 : 2013년 5월 21일 ~ 5월 22일 16:00까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기간 : 2013년 5월 23일 ~ 5월 24일
- 최종 매수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3년 5월 24일
- 별일 승인 절차 : 2013년 5월 27일 이후

라) 서류 제출처

채무자 상호조선(주) 파산재단 변호사 권영성 법률사무소 (우)642-826 경성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2 대성빌딩 301호

마) 매수 희망자로서 지정통장 혹은 수표로 견적보증금을 납입한 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함. (서류상 하자 지적 경우 매수자 자력 취소하므로 필히 확인 점검 서류 제출)

바) 매도자는 1차 서류 접수 후 선정자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제시된 매수 희망자 중 고액제시 2개업체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부여하고 개별별 2일내 최종매수자 선정

(※ 단독업체일 경우에도 동일함)  
사) 계약체결 후 대금납부

- 최종매수자 선정된 자는 최종매수자 선정 당일에 소정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완료 즉시 예치된 견적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잔금은 계약체결 3일내에 전액 입금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 (개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3) 대금납부

구분	금 액	납 부 일
계약보증금	견적보증금 전액 100%	계약체결 당일
잔 금	계약금액 - 계약보증금 = 계약잔금의 100%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 입금통장 : 경남은행 688 - 07 - 0007911 채무자 상호조선 파산재단내 권영성)

4) 잔금미납 시, 견적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함.

5)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업체는 최종매수자 선정 후 견적보증금 전액 환급(이시없음) [통정입찰시 법원인가 후 환급(송금수수료 공제)/수표(현금)시 최종매수자 선정일 익일 환급]

6. 기 타.

가) 매수 희망의 의사표시 시 사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 희망자에게 있음.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의향이 있는 매수 희망자는 참가일 1일전까지 참가신청서 및 비밀유지약서 제출한 자(업체)에 한하여 매각과 관련된 현상 방문 및 실사 기회를 부여함.

다) 매각물건은 나)군은 채무자 상호조선(주) (주)한국수출입은행(유리은행)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며, 매각대상 자산의 표시는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의 상이하더라도 화산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필히 현장실사 후 종합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목적물에 존재할 수 있는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의 해소, 권리관계의 알소들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조건이며,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 지연,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나 소송을 인원을 제기할 수 없음(다만 유지권과 관련된 채권금 액 및 채무세금으로 인한 물건의 정보 요시 해당업체의 허락을 득한 후 제공할 수 있음)

마) 매수물건의 재원, 수량, 품질 모든 하자책임 및 보전관리, 기타 목적물 장차점소의 지장물 (쓰레기, 폐사물 등)의 제거 및 처리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매수자 부담임.

바) 매도자는 계약 및 출하에 관계된 서류처리까지이며, 그의 사실 정비, 인력 등 전방적인 모든 작업은 매수자 부담임(단, 신채/근대보험증금은 매수자 부담으로 필히 작업착수 전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 후 2013.06월말까지 목적물을 해당공사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만약 지연 시 매수자가 직접 입찰권자인 (주)오리엔트조선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부지사용료 등은 매수자 부담임.

아) 매각목적물의 출하시 계관을 하여야 하며,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금액은 조정함.

자) 계약체결 후 매수자사정으로 계약포기 혹은 해제할 경우, 납입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징수함

차) 매매대금 입금 완료 후 세무계산서 발행.

가) 계약체결 후 목적물 인출시 매도자의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반출일정을 확정하여야 하며, 적당장에서는 (주)오리엔트조선의 규정을 따라야함.

타)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에 지정장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함.

타)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에 지정장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함.

파) 본 목적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계약금의 파산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파산법원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 건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로 제기할 수 없음.

하) 제출서류의 심사,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등은 매도인의 고유권한으로 참가업체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도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채무자 상호조선(주) 관리지원팀으로 문의바람(070-7710-2762 관리부장)

2013년 5월 16일

채무자 상호조선(주) 파산재단 변호사 권영성 상

# 매매

## 주인 직매함.

### 010-4667-9300

# 목포. 2호 광장 코너

⇒ 대지 145평, 건물 433평, 2004년도 신축

⇒ 6층 건물, 1~5층 상가, 6층 고급주택, 주차장 별도

⇒ 감정가/시세 - 17억원

⇒ 임대 - 보 3억원에 월 1,800만원 (임대 중)

⇒ 대출 - 7억 3,000만원 (이자 월 380만원)

⇒ 수입 - 5억원 투자에 월 1,420만원

⇒ 매매가 - 15억 3,000만원

⇒ 층별 분할 매매가능, 1/2 매매가능(동업가능)